시선 분석
- 독서론 : 인공 지능 시대의 비판적 독서 태도

01> 지문

>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에코체임버 효과**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성과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동반한 **'깊이 읽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깊이 읽기는 단순히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제시된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편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에코 체임버' 라는 새로운 정의된 개념이 등장했으니 집중해서 이해해야 한다. '에코 체임버' 효과는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가 '깊이 읽기' 라고 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부분은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깊이 읽기' 는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02> 문항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을 오인**할 수 있다.

◆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지문에서 제시된 **'에코 체임버 효과' 의 개념**이다. 지문 안의 정의된 개념은 무조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로 출제되니 언제나 집중하도록 하자.

⑤ 독자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을 통해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독자가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단순한 인과라도 선지에 제시되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문을 읽을 때 유의하여야 한다.**

2. 윗글의 ㉠과 ㉡의 관계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지적 편향

㉡: 메타인지적 성찰

① ㉠이 선행되어야만 ㉡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 ㉡의 실행에 ㉠은 필요하지 않다. ㉡은 ㉠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정의된 개념들을 비교하는 문장이 나올 때, 밑줄이 쳐져 있다는건 무조건 문제로 나온다는 것이기에 **지문을 읽으며 미리 밑줄이 쳐진 개념들간의 관계를 간단히라도 한 번 생각해주고 문제로 온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과 ㉡은 독립적인 능력이므로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에서는 ㉠의 발달을 우선시해야 한다.

◆ ㉠과 ㉡은 독립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에서 ㉠인 인지적 편향의 발달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간혹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명확한 정오를 내릴 수 없을 때가 존재한다. 모든 국어 문제는 지문을 기반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정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떨리는 실전 수능날 날카로운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3. 다음은 학생의 독서 메모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나는 인공지능으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생성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읽었다.
> • ⓐ **단계 1** : 인공지능이 생성한 보고서의 제목과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며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였다.
> • ⓑ **단계 2** : 보고서 내용 중 특정 관점이 강조된 점을 발견하여, 원전을 직접 찾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대조하였다.
> • ⓒ **단계 3** : 상충하는 관점의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하여 자료들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③ ⓒ에서 상충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에코체임버 효과에서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에서 상충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누락한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이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듯이 '에코체임버 효과' 의 정의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에코체임버 효과' 는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에코체임버 효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없다.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잘 잡아낸다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으니 정의된 개념에 집중하도록 하자.**

시선 분석

- 주제통합 : (가) 묵가의 사상 +
(나) 법가 사상과 스토아학파의 차이점

01> 지문

(가)
전국 시대의 빈번한 전쟁과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묵가(墨家)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하는가"를 정치와 윤리 판단의 기준으로 세웠다.

◆ 전국 시대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묵가는 새로운 정치와 윤리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하는가로 두었다. 따라서 **"실용적인 모습인건가?"**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은 틀리더라도 지문을 읽고 집중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다. 그들의 주장으로 제시된 개념들을 이해하며 정말 실용적인 의견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절용과 상현을 통해 실용적이고 평등한 삶을 지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논증의 기준으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옛 성왕의 가르침에 알맞은가,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의 삼표(三表)를 제시하며, 정책과 행위가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따졌다. 이런 실용주의의 바탕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 하늘은 백성의 이익을 원한다는 신념 아래, 하늘과 귀신을 인정하는 것도 공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 이해했다. 즉, 묵가의 사상에서는 당대의 형이상학마저 불가사의한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미신적 수단이 아닌, 공익 증대를 떠받치는 근거로 쓰인다.

◆ 묵가는 시비를 가리는 방식에서 효과에 중점을 두는 듯 하다. 삼표의 정의된 개념을 제시하며 정책과 행위가 사회에 주는 결과에 집중했음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묵가는 다시 한 번 실용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입장의 바탕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한다. 하늘과 귀신 조차 사회적 장치이면서 공익 증대를 떠받치는 근거로 이해한 것이다. 어떤 사상의 주장과 근거는 해당 사상이 목적으로 하는 바와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묵가가 상벌을 분명히 하는 중앙집권적 질서를 지지하는 태도의 목적은 군주의 영광이 아닌 민생의 안정에 있었다. **인재 등용 원칙과 등용된 이가 윗사람의 올바른 명령에 맞추는 상동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능력에 따른 포상과 엄정한 처벌로 규칙을 실효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 첫 문장에서 묵가는 상벌을 분명히 하고, 그의 목적은 군주의 영광보단 민생의 안정에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한다. 상동의 정의된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는' 등의 수식을 사용한 개념 정의는 넘어가기 쉬우니 주의해서 독해해야 한다.**

(나)
상앙과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는 명문화된 규범, 통치 기술, 권위의 결합을 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법가는 인간을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도덕적 선의에 기대어 질서를 수립하기보단, 제도와 규칙, 그리고 신상필벌의 확실한 집행으로 행동을 설계한다. 또한 농업과 군공을 국가 존속의 바탕으로보고, 공로와 성과에 따라 서훈과 승진이 결정되는 능력주의를제도화하였다. 목표는 국가 질서의 안정과 군주의 권력 유지이기에, 전쟁도 필요하다면 수단이 되며 절약 또한 도덕이라기 보다 통치 수단이였던 것이다.

◆ 앞서 나온 묵가의 내용이 끝나고 법가의 입장이 등장했다. **(가)와 (나)로 연결된 지문들이기에, 앞서 나온 내용들과 엮어서 비교하며 읽어주는 것이 좋다.** 법가 사상의 핵심은 명문화된(문서로써 명백히 된) 규범, 통치 기술, 권위의 결합이다. 법가는 제도, 규칙, 확실한 집행을 지향한다. 또한 농업과 군공이 잘 정비되어야 국가가 존속될 수 있다고 보며, 능력주의를 주장하였다. 앞서 나온 묵가는 비공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을 주장했지만 법가는 전쟁도 필요하다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묵가가 제시했던 절용을 법가는 도덕이라기 보다는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구의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합치하는 삶과 덕의 일치를 윤리의 중심에 두었다. 정념을 통제하여 평정을 얻고, **이성적 존재로서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본다.** 법과 의무는 보편이성의 표현이며, 신분과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가 요청된다. 또한 절제와 검약은 덕의 훈련이고 운명 앞에서 내적 판단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현자의 과제이다. 법가와 달리 스토아 학파의 목표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덕에 근거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평정인 것이다.

◆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최대한 앞의 내용들과 엮어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서구의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합치하는 삶과 덕의 일치를 윤리의 중심에 두었다고 주장한다. 정념을 통제하여 평정을 얻고 모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며 세계 시민으로 본다. **이성적 존재로서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본다고 하였으니 모든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02> 문항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삼표(三表)

② 경험적 근거가 아닌 하늘의 뜻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삼표의 정의된 개념은 옛 성왕의 가르침에 알맞은가,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정의된 개념을 잘 잡았다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선지이다.

⑤ 옛 규범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 삼표의 정의된 개념은 옛 성왕의 가르침에 알맞은가(옛 규범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님.),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정의된 개념을 잘 잡았다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선지이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유가의 입장에서는 묵가의 윗사람의 올바른 명령에 따르는 체계가 다양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겠군.

◆ 윗사람의 올바른 명령에 따르는 체계는 '상동' 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문제를 **풀다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개념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내용을 풀어 서술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을 때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 기억하도록 하자.**

④ 법가의 입장에서는 묵가와 마찬가지로 공로와 성과를 중심으로성과에 따른 인재 등용을 추구하겠군.

◆ 지문을 읽으며 선지의 내용이 머리속에 잡혔다면 정말 훌륭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지를 보고 다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Y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도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시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A 의원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되,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명확한 법규와 강력한 단속으로 질서를 세우고, 위반자에게는 엄벌을 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의원은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내적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 <보기> 문제는 지문 내에서 이해한 정의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보기>에서 제시된 새로운 개념들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고 사례도 쉬웠기에 지문 내에서 정의된 개념(+사상가들의 주장)을 잘 잡았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④ 묵가의 관점은 B 의원의 방식은 포상 제도가 부족하여 실질적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우려하겠군.

◆ 묵가는 능력에 따른 포상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규칙을 실효화해야 한다고 봤다. B의원은 엄중한 처벌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포상에 관한 언급은 없으니 적절한 선지이다. 각 주장들도 정의된 개념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 와야한다.

03> 연관 기출

2014년 **6**월 모의평가 **A**형

> 그런데 러더퍼드의 모형은 **각각의 원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

◆ 지문을 읽으며 나왔던 개념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사례이다. 위의 문장을 읽고 각각의 원자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 마찬가지로 위의 문장들을 읽으며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는 점과,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 변증법을 통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6**월 모의평가

>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
>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 지문에서 '과두제'의 정의된 개념이 등장했다.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정의된 개념이 등장하는지 단순한 예시로 살펴보자.

5.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②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들을 잘 이해했다면 5번의 2선지는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국어 비문학의 빠른 문제 풀이 속도는 이러한 것에서 오는 것이니 시간 단축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말 많은 기출들을 읽으며 정의된 개념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시선 분석
- 사회 : 멸종위기생물과 관련한 법률

01> 지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을 둘러싼 관계 법령들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핵심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동물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하위 법령이 적용 주체 및 보호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가령 멸종위기종이 하천이나 바다에 분포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인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 법령이, 생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일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로 관할한다. 그러나 법령 간 경합이 일어난다면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법령 역시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 야생생물보호법이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멸종위기종의 특성, 즉 수산물인지, 천연기념물인지 등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적용된다. 법령 간 경합이 일어날 때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수전적으로 고려된다는 설명에서 **"중심 법령이라 먼저 적용되는구나", "중심 법령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생물이 수산물이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의 영향을 받더라도, 야생생물보호법과 배치되는 법령이 있다면, 야생생물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도 포획·채취가 엄격히 제한된다. I급과 II급에 관한 처벌은 개인이나 기관이 연구 또는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 또한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정의하고 수출·수입 시 환경부 허가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 I,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법 지문의 특성상, 조건과 주체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포획 및 채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또는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위의 조건을 따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관련 규정이 '국내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 수입시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을 독해할 때, 특히 **법 지문에서는 특정 조건이 어긋나면 법령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독해**해야 한다.

>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는 사실상 허가가 극도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더라도, 멸종위기종 포획은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울타리와 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충돌하면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멸종위기생물은 해당 지문의 핵심 제재이기에 해당 지문에서는 "허가가 극도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02> 문항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의 포획 및 반출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법지문에서는 주체 파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자체가 허가하는 것인지, 환경부가 허가 하는 것인지,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어떤 주체가 허가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는 선지이다. 해당 선지를 틀렸다면 **주체를 파악하는 것에 유의하자.**

③ 2024년 이후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이전과는 달리 관련 허가를 취득한다면 불법 증식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 지문에서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무허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이후 멸종위기종의 무허가 인공증식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변화하였기에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이전과는 달리 불법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중 어느 부분을 보았어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해당 선지를 틀렸다면 **선지를 끊어 읽는 습관**을 들이고, **지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13.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지자체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흰목물떼새가 민가 근처 하천 둑에서 번식 중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기존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포획에 더해 "흰목물떼새도 공격적이고, 농작물을 훔쳐 먹어 불편하다"며 포획 요청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A 지자체장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포획 불허 방침을 알렸다. 대신 하천 인근에 피해방지단을 통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으나, 계획된 설치 구역은 흰목물떼새의 구역 일부를 포함하였다.

② 흰목물떼새를 **피해방지단을 투입하여 포획하지 않은 것**은 **흰목물떼새가 충분히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겠군**.

◆ 지문에서 **예외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출제**되기에, 집중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포획의 허가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과, 제한이 허가되는 기준, 즉 **예외 상황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이해**하였다면 간단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

03> 연관 기출
2109 행정입법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잡하지만 구분해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 주체, 국회, 행정 규제, 행정 기관, 행정입법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구분과 이해에 있어 필수적이며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목적이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것,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 규제의 목적은 그것과는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발췌 부분은 행정입법의 유형을 설명한 후, 해당 유형 중 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글자만 눈으로 훑다가 한 지문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기에, 어렵다거나 생소하다고 느낄 때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도 좋으니 자신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읽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머릿속을 정리하며 독해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시선 분석

- 기술 : PWM제어

01> 지문

> 근대 전자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점차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전력 효율이 낮고 전압 조절 시 신호의 분실이 발생하였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을 대체한 PWM 제어 방식은 신호의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대신, 켜짐과 꺼짐으로만 구성된 펄스 신호**를 사용한다.

◆ PWM 제어 방식은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대신 꺼짐과 켜짐으로만 구성된 전압을 반복적으로 인가한다. 크게 '연속적'인 방식과 '비연속적'인 방식으로 나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이 점차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않은 방식이 지문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 PWM 신호는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되며, **1초 동안 몇번의 펄스가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주파수**이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간의 눈이나 기기는 신호를 개별 펄스가 아닌 연속적 흐름처럼 인식하기 쉬워지고, 주파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깜빡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신호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듀티 사이클이다. **듀티 사이클은 펄스의 폭이며 한 주기에서 신호가 켜진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
> PWM 제어 방식은 **듀티 사이클을 통해 전압의 평균값을 결정**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다. 듀티 사이클을 절반 정도로 설정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중간 밝기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LED가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며 **주파수, 즉 펄스의 반복 속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한다면 인간의 눈에는 전구가 깜빡임 없이 일정한 밝기**로 보이게 된다.

◆ 주파수, 듀티 사이클, 펄스의 반복 속도, 펄스의 폭 등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제시되고 있다. 주파수가 곧 펄스의 반복 속도이며 듀티 사이클이 펄스의 폭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문단에 관련 설명이 있다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펄스는 꺼짐과 켜짐으로만 구성되기에 펄스의 한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은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주파수, 즉 펄스의 반복 속도는 LED가 '보이는 방식'과 관련 있으며 듀티 사이클, 즉 펄스의 폭은 전압(LED의 밝기)기에 영향을 미친다. **두 수치 모두 영향과 비례한다고도 정리할 수 있다.**

> 물론 **펄스의 반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하거나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느린 반복 속도**로 설정하면 LED가 깜박이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펄스의 반복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점'**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수능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집중하며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02> 문항

15. PWM 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해당 문항은 PWM 제어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수치가 변화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최선은 지문을 독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막힘없이 푸는 것이겠지만, **지문으로 돌아갈 상황을 대비하여 어떤 문단에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실전적'으로 좋다.** 우리는 모든 개념을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지문 내에서 정보의 중요도에서 대소를 판단하는 능력이 수능 독서의 핵심임.)을 집중해서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개념일지라도 "어떤 문단에 있었지"라는 기억을 통해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16.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모터를 PWM 방식으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 · 동력이 전달되는 길이의 비율에 비례하여 모터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 ·펄스 반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진동과 소음이 가중된다.

◆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PWM 방식으로 조절하기에, 꺼짐과 켜짐으로만 구성된 펄스 신호로 동력을 전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동력이 전달되는 길이의 비율은 지문의 '신호가 켜진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의 비율'과 같은 개념이며 펄스의 반복 속도가 느린 것은 지문의 'LED가 깜빡이는 시각적 문제'의 경우와 맞닿아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펄스의 주파수를 낮추면 동력이 모터에 전달되는 빈도가 줄어들어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펄스의 주파수는 한 주기에 펄스의 켜짐과 꺼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결정한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켜짐과 꺼짐이 반복되는 횟수도 줄어들기에 모터에 동력이 전달되는 빈도가 낮아진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파악했던 높은 주파수의 문제점이었던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하는 것 또한 주파수를 낮추면 해결되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어떠한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문제 해결 과정'을 집중해서 파악하였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이니, 이런 문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선지를 끊어 읽는 습관과 특정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03> 연관 기출

2206 PCR 기술

>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 복잡한 개념이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우리는 지문에 메모와 함께 표시하거나, 어떤 문단에 어떤 정보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절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거나 대충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완벽히 이해하는 최선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되,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는 이야기이다.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나는 것에서 **'문제'의 뉘앙스를 느끼고**, 해당 부분에 관련된 **해결 과정이나, 문제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 분석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01> 지문

[앞부분 줄거리] 정한담이 역모를 일으키자, 수련 중이던 유충렬은 이에 맞선다. 남경에 도착한 유충렬은 정한담과 승부를 벌인다.

도사가 적진에서 충렬에게 한담의 투구가 깨어진 것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징을 쳐 거둠에, 한담의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더니 징을 쳐 거둠에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놓고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거늘. 좌우 구하니 겨우 정신을 차려 앉으며 왈,

"선생은 어찌 알고 소장을 불렀나이까?"

도사 왈,

"적장의 칼 끝에 장군의 투구 깨어지기로 만분 위태하여 불렀노라."

한담이대경하여 머리를 만져보니 투구 없는지라 더욱 놀라 왈,

"적장은 일정 천신이요, 사람은 아니로다. 십년을 공부하여 사람은 커니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법이 많았더니, 마룡과 최일귀 죽음을 조심하여 십 년 배운 법을 오늘날 모두 다 베풀어 적장을 잡으려 하더니 잡기는 새로이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소. ⓐ천행으로 선생의 힘을 입어 목숨이 살았으나 천만 가지로 생각하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선생은 깊이 생각하옵소서."

◆ 편집된 지문이기에 도입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한다. 앞부분 줄거리를 읽어보면 유충렬이 영웅, 정한담이 악역임을 인지할 수 있다. 영웅 유충렬에 의해 정한담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으며 도사가 그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 유충렬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맥락상 마룡과 최일귀는 정한담의 편임을 기억해주면 되겠다.

도사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이윽히 생각하다가 군중에 전령하여 진문을 굳이 닫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을 잡으려 할진대 인력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군장 기계를 모아 여차여차하였다가 적장을 유인하여 진중에 들게 되면 제 비록 천신이라도 피할 길이 없으리라."

한담이 대희하여 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제하고 수일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왈,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두려워할 만하구나.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A] 이때 원수 의기양양하여 진전에 횡행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출마하여 일합이 못하여 거의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징을 쳐 거두거늘 다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제,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 없고 음풍이 소소하며, 한설이 분분한데 지척을 모를레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꾀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곧 숨이 끊어지는구나. 원수 대경하여 신화경을 펴 놓고 둔갑장신하여 일신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중을 살펴보니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검극은 삼대같이 벌였으며 사해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사석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 하는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며 풍백을 바삐 불러 운무를 쓸어 버리더라.

◆ 인물의 대화는 과거 사건을 요약하거나 미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 줄 수 있기에 확실히 읽어주어야 한다. 도사가 유충렬을 유인하자는 작전을 제시하고 있다.

◆ 이전 대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충렬이 정한담의 꾀에 속아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편집자적 논평이 등장하였기에 확보해 주어야 한다.

◆ 유충렬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위기 상황을 타개해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영웅군담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이다.

(중략)

이때 정한담이 도사의 꾀를 듣고 적장을 유인하여 함정에 넣었더니 죽기는 고사하고 삼군 억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장대에 달려들어 한담의 흔백 붙인 위인을 베이고 후군을 지치다가 황태후를 데려가는 양을 보고 넋을 잃어 도사에게 들어가 여쭈오되,

"충렬은 일정 천신이라 이제는 백계무책이오니 선생은 어찌하오리까?"

도사 대경망극하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한 꾀를 생각하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 유충렬은 거거년전에 연경으로 귀양간 유심의 아들이라 하니 이제 군사를 급히 재촉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면 제 아무리 충신이나 임금만 생각하고 제 아비를 생각지 아니하랴."

한담이 이 말을 듣고 대희하여 군중에 전령하되 날랜 군사 십여 명을 조발하여 유주부를 빨리 나입하라고 분부하니라.

◆ <중략>에서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문장이다. 유충렬에게 정한담의 꾀가 통하지 않았으며 황태후를 구출했다는 점을 기억해주자.

◆ 도사의 또 다른 꾀가 등장했다.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을 잡아 유충렬을 협박하자는 내용이다. 이때 유주부와 유심은 동일 인물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한 인물에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고전소설의 특징이다.

각설 이때 유주부가 북방 극한지지에 누년 고생함에 위인이 보잘 것이 없고, 남경에 난리 났단 말을 듣고 주야 근심하며, 행여 천자 죽을까 염려하여 동지장야 길고 긴 밤에 촛불만 도도 켜고 빌며 왈,

"명천이 감동하사 우리 천자 살릴진대, 내 아들 충렬이 살았거든 남경을 구원하고 제 아비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듯 정성을 드리더니 뜻밖에 한떼 군사 달려들어 유주부를 잡아 내어 수레 위에 높이 싣고 불원천리 재촉커늘 유주부 정신 없이 인사를 놓았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생각하되,

"이제는 하릴없이 죽는도다. 우리 천자 승전하였으면 날 잡아오라기 만무하다. 일정 정한담이 역적 되어 천자를 죽이고 나도 또한 죽이려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 청천 일월도 무심하고 형산 신령도 못 믿겠다. 내 아들 충렬이도 정녕 죽었구나. 살았으면 어디 가서 아비 원수 못 갚는가."

이렇듯이 슬피 울 제 군사들도 낙루하더라.

◆ 유주부가 잡혀가는 과정과 이후의 유주부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정한담이 천자를 죽였으며 자신의 아들도 함께 죽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인물의 생각은 선지로 등장할 수 있기에 기억해주면 되겠다.

여러 날만에 적진 중에 득달하니 이때 정한담이 용상에 높이 앉아 곤룡포를 정히 입고 백관이 시위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계하에 엎지르고 달래어 하는 말이,

"그대 마음이 하 고집하기로 만 리 연경에 수년을 고생하니 내 마음이 불안한지라. 이제는 짐이 천자되어 백관을 거느렸더니 그대 아들이 아직 미거하여 천위를 모르고 죽은 명제를 살리려고 우리 군사를 침노하니, 죄상을 논지컨대 진작 죽일 것이로되 그대를 생각하여 아직 살려 두었더니 종시 항복지 아니하노라. ⓒ 그대를 데려다가 자식에게 편지나 하여 부자 함께 만나, 나를 도우면 고관대작은 원대로 할 것이니 부디 사양치 말라."

유주부 이 말을 듣고 분심이 차올라 눈을 부릅뜨고 쭈그려 앉으며 왈,

"네 이놈 정한담아. 천지도 무섭잖고 일월도 두렵지 아니하냐.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이 설혹 있은들 우리 천자를 모시고 너같은 역적 놈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비 무슨 일로 성군을 저 버리고 역적을 도우라 하며, 내 자식은 새로이 광대한 천지간이 삼 척 동자도 네 고기를 먹고자 하노라. ⓓ 하물며 내 아들이 옥황이 점지하사 남경을 도우라 하였으니 만고역적 너 같은 놈을 섬길 듯 하냐."

◆ 정한담이 유심에게 전하는 발언이 제시되어 있다. 자신이 천자가 되었으며 유충렬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에 자식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돕도록 한다면 지위를 보장해준다고 회유하고 있다.

◆ 정한담의 발언을 들은 후의 유심의 발언이 제시되어 있다. 정한담은 역적이며 자신이 아들에게 역적을 도우라고 할 수 없기에 회유에 대해 분노하며 거절하고 있다. 연속한 대화내용이기에 정한담의 발언을 기억하면서 유심의 반박을 읽어주면 되겠다.

02> 문항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인물의 회상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④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 지문을 읽으며 [A]에 편집자적 논평이 등장하였음을 기억하였으면 ①을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이다.

◆ ③선지의 내용인 현재와 과거의 교차 및 장면 전환은 웬만해서는 고전소설에 등장하지 않기에 기억해주자.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한담'은 '도사'에게 자신을 귀환시킨 이유를 물었다.
② '도사'는 '정한담'에게 충렬의 내력을 이유로 들어 계책을 제안했다.
③ '유충렬'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정한담'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④ '유심'은 군사가 자신을 잡으러 오자 패전하였으며 '충렬'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⑤ '정한담'은 '유심'에게 유심을 생각하여 충렬을 살려 두었다고 말했다.

◆ 대부분의 선지들이 대화내용에서 등장하고 있다. 고전소설에서는 대화내용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자.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적의 강함을 이유로 계책을 세울 것을, ⓒ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제안하는 말이다.
② ⓐ와 ⓓ는 인물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재촉하는 말이다.
③ ⓑ는 상대를 인정하며 자신과 결판을 낼 것을, ⓓ는 초월적 존재의 점지를 이유로 들어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전하는 말이다.
④ ⓒ는 주어질 보상을 들며 상대를 회유하는 말이며, ⓓ는 상대를 비난하며 회유를 거절하는 말이다.
⑤ ⓐ는 상대의 공을 치하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말이며, ⓑ는 상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말이다.

◆ 문제에 밑줄 친 문장들에 대해 묻고 있다. 두 개씩 묶어 물어보는 형식이기에 앞의 내용이 틀렸으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주자.

◆ ③번 선지 ⓓ의 경우 '초월적 존재의 점지를 이유로 들어' 까지는 적절하지만 뒤의 부분이 틀렸다. ⓓ문장 위쪽인 정한담의 발언에서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헷갈려서 체크해서는 안된다.

◆ ⓒ와 ⓓ는 이어지는 대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유 후 거절이 담겨있다는 점은 지문에서 파악했어야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은 천상에서 내려온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적대자의 전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적대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주인공과 전투한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는 그를 구제하거나 상대를 제압할 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도사'가 '한담의 투구가 깨'진 것을 보고 '징을 쳐' 본진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적대자를 구제하는 조력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② '원수'가 적진에 달려들자 안개가 '사면에 가득'해지고 '장창검극'이 '삼대같이 벌'어진 것에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력자의 계책을 알 수 있겠군.
③ '도사'가 한담에게 '적장'이 '유심의 아들'이므로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는 것에서, 상대를 제압할 조력자의 계책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군.
④ '유주부'가 '군사'에게 잡혀서 '수레 위에' 실린 후 '적진 중에 득달'한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이 실행되는 중임을 알 수 있군.
⑤ '정한담'이 '곤룡포를 정히 입'은 후 '유심을 잡아다가' 달래어 그를 회유하는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을 따라 행동하는 적대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제시된 지문의 인물들에 대한 추가정보가 담겨있는 <보기>이다. <보기>를 읽으며 주인공과 적대자 그리고 조력자가 각각 지문의 누구에 대응되는지 파악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03> 연관기출

2006 조웅전

유충렬전과 같은 군담 영웅소설이다. 악인의 꾀와 관련된 지문이니 잘 읽고 풀어보도록 하자.

시선 분석

- 갈래복합 :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김광균, 「설야」 + (다) 이효석, 「마음의 공허감」

01> 지문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현대시를 읽을 때에는 처음 보는 시여도 최대한 시적 상황을 확보해준다는 맥락으로 읽어주어야 한다. <보기>에 시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면 미리 읽고 지문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 파악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중심적으로 읽어나가야 한다.

◆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수미 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법이 활용되었음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부분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함께 인지해주어야 한다.

(나)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췬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 '머언', '하이얀', '호올로'를 보면 시적허용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허용이 활용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 '서글픈, ' 내 슬픔 '을 보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감정어는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 먼 곳의 그리운 소식, 먼 곳의 여인 옷벗는 소리를 연결해 읽어보면 먼 곳의 어인은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문학도 독서처럼 문장을 붙여 읽어주면 좋다

◆ '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 를 보면 화자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리워한다는 정서와 연결지어 "잃어버렸으니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자

◆ 어미를 보면 설의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의법은 강조의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자.

(다)

웬일인지 혜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 어느 때보다도 달라 요새는 한 장의 편지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적 생활이 어디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합니다.

ⓑ 문학의 말씀도 하였으나 제게는 문학보다 더 근본적인 생각이 요새 마음을 할퀴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생애의 여간 심상한 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허감이 더욱 뼈를 깎습니다. 단순히 의지할 애정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간적인 괴로움이요 ㉡ 허무감인 듯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극히 쉬운 노릇이 됐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언제나 그것을 조용히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고 식욕도 점점 줄어지면서 의기가 아주 저악(阻惡)해졌습니다. 이노우에의 연주를 들으러 전 토요일에 떠나려고 벼르다가 갑자기 시들해져서 그만두었습니다. 형의 말씀마따나 나이를 먹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아주 늙은 것 같습니다. ⓒ 꿈의 한계가 점점 줄어가고 죄어감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에 몸부림을 치고도 싶습니다. 앞으로의 반생이 얼마나 생광(生光)이 있겠습니까. 초조와 낙망이 계속되다가는 냉정한 최후적인 절박함이 솟군 합니다. 생애의 커다란 변화기 — 라느니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문학의 플랜을 이것저것 세워 보다가도 별안간 그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되면 그만 의기가 잦아들곤 합니다. 물론 이런 심경이 차차 변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요 — ⓓ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는지요.

극히 유물적인 인간의 일이오니 생활의 조건이 달라지면 괴롬도 또한 극복될는지 모르겠사오나 이렇게 막다르게까지 생각해본 적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절박감이 얼른 한때의 악몽처럼 지나가기를 한편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내온 일생을 돌아다 보고 참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사람의 욕망같이 어느 때까지 창창하고 누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두서없는 생각이 요새는 자꾸만 마음을 괴롭힙니다. 정 답답해지면 바람 쏘이러 언제나 올라가겠습니다. 적극적인계획을 서로 말하면 얼마간 마음도 잡힐는지요. 안녕하세요.

- 이효석, 「마음의 공허감」-

◆ 수필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도입부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이후의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다. 화자는 내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쓸쓸해하고 있다.

◆ 한장의 편지가 반가움, 문학의 말씀도 하였으나 를 읽어보면 화자는 편지에 답신을 하고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맥락에서 상황을 읽어내자.

◆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능하다면 정서의 원인을 파악해주면 좋다. 지문에 따르면 의지할 애정이 없어서가 아닌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이라 서술되어 있다.

◆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가 바뀔 수 있기에 집중해서 끝까지 확보해야한다. 해당 지문은 외로움의 정서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 정도는 얘기하고 있다.

02> 문항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②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이미지, 소재, 표현법의 경우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도 지문으로 돌아가 더블체킹 해보는 편이 좋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다. 시에서 설정된 '먼 곳'은 그리움의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인 반면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이러한 대상이 부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때 대상이 부재한 공간에서 내리고 있는 눈은 '먼 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대상이며, 이에 대한화자의 반응을 통해 추억에 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된다.

① 어느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눈이 '흩날리느뇨'라는 것은, 한밤에 내리고 있는 눈을 통하여 그리워하는 대상을 연상하는 것이겠군.
② '흰 눈이 내려'서 '입김'이 나오고 '절로 가슴이' 메는 것은, 눈을 통하여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③ '홀로' 있는 밤에 눈이 '뜰'에 내리자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리운 대상이 부재하고 있던 공간에 눈이 내림으로써 대상의 부재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겠군.
④ '희미한 눈발'로부터 '잃어진 추억의 조각'을 생각하고 '추회'를 싸늘하게 느끼는 것은, 흩날리는 눈을 통하여 상실한 대상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겠군.
⑤ '차단한 의상'을 한 '눈'이 쌓이고 눈 위에 '슬픔'이 서리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겠군.

◆ 앞서 얘기하였듯이 <보기>에 시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파악하고 지문을 읽어주자. '먼 곳', '눈' 키워드를 그대로 시와 연관지어 이해해주면 되겠다.

◆ '일시적으로 해소' 라는 내용를 잘 살펴보자. 해당 문제는 대상의 부재가 해소된 적이 없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만 타 문제에서 '일시적'이 나왔다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꼭 파악해줘야 한다. 이는 정서를 제대로 파악해줘야 하는 것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

◆ 마찬가지로 ' 지속 '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

2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것은 모란이 피길 인내하는 것에 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②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긴다는 것은 대상을 상실한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③ '무덥던 날'에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 것은 화자와 모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④ '뻗쳐오르던' 보람이 '무너'진 것은 모란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변화를 드러낸다.
⑤ '모란이 피기까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피고 지는 봄의 양면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시적 상황과 정서를 결부한 문제이다. 각 상황과 정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결부되어도 되는지 꼭 확인해주자. 평가원에서는 상황과 정서를 엇갈려 내는 것을 좋아한다.

2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진단한 타인의 결점이다.
② ㉠은 시간이 경과하며 희미해지고 있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다.
③ ㉠은 화자의 이상향이 형상화된 대상이고, ㉡은 계획의 실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④ ㉠은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의 문학에 관한 계획이 지닌 결점이다.
⑤ ㉠은 화자가 지닌 상처를 치유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지닌 상처를 심화하는 대상이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타인의 소식을 받은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어 자신의 내적 쓸쓸함을 부각하는 말이다.
② ⓑ : 두 대상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적 고통을 유발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말이다.
③ ⓒ :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말이다.
④ ⓓ :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허무감의 해소를 기대하는 말이다.
⑤ ⓔ :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다.

◆ '대비' 는 두 대상인지 그리고 대비인지 꼭 확인해주자.

◆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 변화로 인해서 허무감이 해소되었는지 각각 확인하고 연결 지은 후 판단해야 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화자가 결핍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양상은 작품마다 다르다. (가)는 결핍의 해소에 대한 소망을 모란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때 모란은 삶의 궁극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모란이 개화하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다)는 의지할 곳이 결핍된 인물이 공허감에 빠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다. 결핍된 상태의 인물은 의지를 상실한 채로 삶과 미래의 계획, 고통의 극복에 대해 진단해 보지만 이는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① (가)에서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라 표현한 것은, 삶의 궁극적 가치를 모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군.
② (다)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노릇이 됐'다고 표현한 것은, 의지할 곳이 결핍된 인물이 허무감에 휩싸여 삶에 관한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드러내는군.
③ (가)에서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지고 '섭섭해' 운다고 표현한 것은,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이 좌절되고 가치의 모색에 대해 비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④ (다)에서 앞으로의 '반생'이 얼마나 '생광'이 있겠냐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이 내린 삶에 관한 비관적인 진단을 드러내는군.
⑤ (가)에서 '지고 말면 그뿐'이라 표현한 것은 궁극적 가치의 모색에 대한 중요성을, (다)에서 '문학의 플랜'이 '무의미'하다고 표현한 것은 미래의 계획에 관한 비관적인 진단을 드러내는군.

◆ <보기>에 (가)와 (다)의 정보가 담겨있다. (가)는 모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를 연결 짓고 있다. (다)는 화자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에 의지 상실, 미래의 계획 및 고통에 극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보해자.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를 대응해서 풀어주면 된다.

03> 연관기출

2021 수능
이용악, 그리움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그리움의 정서를 담은 현대시 지문이다. 본 지문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자.**

시선 분석
- 현대소설 : 김승옥, 「역사(力士)」

01> 지문

그러나 이 집으로 옮아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 기타를 퉁겨 보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도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 흥이 나지 않아서였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서 마당 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고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 소설의 서두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초점으로 잡힌 인물' 정도는 파악해주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서술자가 '나'임을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때 초점으로 잡힌 인물은 '이야기의 주인공'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 현재 상황은 '나'가 '이 집'에 옮겨왔고, 기타를 키려다가 할아버지에게 막혀서 기타 키는 시간을 배치 당했다. '나'는 이것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지를 '위대한 가풍'이라고 한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들 없는 표정-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 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空轉)같아 뵈던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는 생각이 나를 몹시 짓누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의 내부 한쪽에서 솟아나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 라는 집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발전하여, 미리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는 듯이, 나는 이 양옥의 식구들 생활을 빈껍데기에 비유하고 있었다. 빈껍데기의 생활, 아니라면 적어도 방향이 틀린 생활,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갔다.

◆ '처음에'라는 말에 주목하면 좋겠다. 이 집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인지하며 '나'가 어떤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지 따라가 주자. '이 집의 가족들'에 대한 '나'의 설명이 나열되고 있으니 이것과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작품을 읽어주면 되겠다.

◆ '그 어느 지점'이 무한히 먼 곳에 있다면 아무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며, 그 지점에 도달할 수도 없다. ⓑ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 '나'는 양옥집 식구들과 빈빈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며 둘 중 한 편이 틀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는 충동에 이끌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다.

드디어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용조용한 식모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주전자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식모가 문단속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난 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루약은 성공적으로 음료수에 용해되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다소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모두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방의 불도 꺼졌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잠을 이루고 있을까. 나는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방에 불을 켜고 앉아서 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바랐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와서 의자 위에 앉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방마다 불이 켜지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잠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그들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그들은 잠든 체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쾅 하고 피아노를 울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뛰어나오리라. 물론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고 나를 나무란다는 대의명분으로서. 나는 피아노에 생각이 닿은 것이 기뻤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웃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 놓여졌다. 이제 손에 힘만 주면 되었다. 물론 곡도 무엇도 아닌 광폭한 소리만이 이 집을 떠내려 보낼 것이다.

◆ 중략 줄거리는 지문 이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것이다. 한번 읽어 주고 지나가면 좋겠다.

◆ '나' 가 양옥집 식구들이 먹는 물에 수상한 가루를 탄 상황이다. 사람이 차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약인 것 같다. 이 상황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한 '나' 의 반응과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주자.

◆ '나' 는 가족들이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에 불은 켜지지 않고 '나' 의 기대를 좌절된 것이다.

◆ '나' 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족들이 뛰어나오도록 하고자, 피아노를 내리칠려고 한다.

◆ '나' 의 이러한 행동에는 중략 이전 부분의 위대한 가풍에 대한 '나' 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 '위대한 가풍' 은 가족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가령, '나' 는 기타 키는 시간을 제지 당하고 배치당했다. 이러한 위대한 가풍이 적용된 식구들에 대한 '나' 의 회의감과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나' 가 이러한 극단적 행동을 보인 것이다.

ⓓ 여기서 공원의 그 젊은이는 그의 얘기를 그치었다. "그저 덧붙여서 한마디 한다면…." 하고 그 젊은이는 잠시 후에 얘기했다. "그날 밤 피아노가 그토록 시끄럽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피아노 앞에서 떼어 내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기침 소리를 들은 듯하기도 했습니다만." 피아노 앞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고독함을 느꼈고 그의 방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이 왜 그렇게도 억세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젊은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글쎄요."라고 나는대답하며 생각했다. 나로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 김승옥, 「역사(力士)」-

◆ ⓓ에서 앞의 얘기가 액자식 구성에서 액자 속 이야기임을 파악할 수 있다.

◆ 그리고 피아노를 치자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음을 얘기해주며 발췌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02> 문항

2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에 대한 인물의 심경 변화를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서 동일한 장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특정 집단을 향한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며 그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⑤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추리하고 있다.

◆ 발췌된 부분의 핵심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이기에 ③번 선지를 보자마자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너무 좋았다.

◆ 그리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과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이야기 내부의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는 자신에게 배치된 '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말이다.
② ⓑ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관해 스스로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다.
③ ⓒ는 자신과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편이 틀렸다는 확신이 드러나는 말이다.
④ ⓓ는 앞의 이야기가 '그 젊은이'의 이야기였음이 드러나는 말이다.
⑤ ⓔ는 앞서 얘기한 의문을 '나'에게 물어보는 '젊은이'의 말이다.

◆ 각 다섯 부분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또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보해 주어 풀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 같다. 또한 지문을 독해하며 이를 확보해 두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3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물이 제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은 인물이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② ㉡은 인물이 반감을 가지는 대상이고, ㉢은 인물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활용했던 시간이다.
③ ㉠은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질타를 받은 원인이고, ㉡은 인물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④ ㉠은 인물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계기이고, ㉢은 인물이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
⑤ ㉡은 인물이 속한 집단이 따르는 규율이고, ㉢은 그 규율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다.

◆ 이야기의 중심 서사와 관련된 세 대상에 대해 물어 보는 문제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풀었으면 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역사(力士)」의 양옥집은 '공원의 젊은이'를 구속하는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는 양옥집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한 후, 사실 양옥집의 질서는 사람들을 예속시키려는 폭력성을 지녔으며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변질된 질서인 것을 깨닫는다. 한편, 그는 양옥집의 질서를 깨버리기 위해 저항하는데, 이는 좌절되며 질서의 폭력성으로 인해 다시 예속되고 만다.

① 양옥집 사람들이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양옥집의 질서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알 수 있군.
② 그가 '양옥의 식구들'의 생활을 '빈껍데기의 생활'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양옥집의 질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그가 '쾅 하고 피아노를 울리'면 '그들'이 '나무'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저항에 실패할 것이라 예상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④ 그가 피아노를 쳤지만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던 것에서, 그가 질서를 깨기 위한 저항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군.
⑤ 그가 자신을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팔'이 '억세게 느껴졌'던 것을 통하여, 사람을 예속시키려는 질서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군.

◆ 제시된 지문에 대해 해설을 해주는 <보기>이다. 선지에서 지목한 지문의 부분과 지목한 <보기>의 내용이 매칭되는지, 선지에서 지목한 <보기>의 내용이나 지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문제를 풀면 되겠다.

03> 연관 기출

2309_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중심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정서·태도를 가지는지 따라가며 독해하는게 핵심인 기출이다. 직접 풀어보며 그 흐름을 느껴보도록 하자.

시선 분석

- 고전시가 : (가) 정철, 「속미인곡」 + (나) 이신의, 「사우가」

01> 지문

(가) 정철, **「속미인곡」**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 저문 날의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네로구나 내 사정 들어보소
내 얼굴 이 거동이 임께서 사랑한 직 한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의 지은 죄 산 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랴
서러워 펼쳐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중략)

◆ 유명한 작품이기에, 최초 독해를 생략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시험장에서 낯선 작품을 만났다고 가정하여 지문 해설을 진행해 보겠다.

◆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저 각시'에 주목하여 말을 하고 있다.

◆ '어와 네로구나 내 사정 들어보소' 부터 '저 각시' 의 말이 진행되고 있다. 근방의 부분을 통해 '저 각시' 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첫 번째, 각시는 자신이 임에게 미움을 산 이유를 '자신의 아양과 교태' 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 각시는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 지금 상황에 대해 각시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책임을 조물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초가집 처마 찬 잠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에 걸려 있는 ㉠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산을 오르며 내리며 강을 헤매어 방황하니
잠깐 사이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늙었어라
마음의 먹은 말씀을 실컷 아뢰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마저 매어오니
방정맞은 ㉡ 닭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어와 헛이로다 임은 어디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여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여지여 낙월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커녕 궂은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

◆ 한밤중에 돌아온 화자는 ㉠이 자신을 위해서 밝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풋잠에 들고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고 꿈속에서 임을 보고 눈물이 나오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말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후 ㉡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꿈속의 임과 헤어진 상황이다.

◆ '가여운 그림자' 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가엽다고 여기고 있으며,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되어 임이 있는 창 안에 비침으로써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달보다 궂은 비가 되라고 말하며 (가)가 마무리 되고 있다.

(나) 이신의, **「사우가」**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늠연*한 것이 반갑구나
풍상(風霜)을 겪어도 시드는 줄 전혀 없다
어찌하여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제1수 - 소나무>

* 늠연 : 위엄이 있고 당당한

◆ 화자는 소나무에 대해 반가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소나무는 풍상이라는 고난을 겪어도 시들지 않고, 봄빛을 가져서 변하지 않는 대상이다.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춘광(春光)을 마다하고 찬 서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제2수 - 국화>

◆ 화자는 국화에 대하여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 춘광은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행은 국화가 봄을 마다하고 겨울에 피는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화자는 국화에 대하여 '청고한 내 벗' 이라며 친밀감과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꽃이 수없이 많되 ㉢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을 퓌여 한 빛인 것이 귀(貴)하기이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는 아니 귀(貴)하고 어이하리

<제3수 - 매화>

◆ ㉢은 매화이다. 화자는 매화에 대해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한 매화는 눈 속에 꽃을 피워 한 빛인, 고난 속에 꽃을 피워서 지조가 있는 대상이며, 그 향기가 그윽한 대상이다.

>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려 창(窓)을 여니
>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숲이 푸르구나
> 어찌하여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
> <제4수 - 대나무>
> - 이신의, 「사우가」 -

◆ 대나무는 눈이 오는 계절에 꽃들이 없음에도 혼자 푸른 대상이다. 화자는 이러한 대나무를 포착하여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02> 문항
선지 복사해서 발췌하면 됩니다.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두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대상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여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대나무가 청풍을 반겨서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은 대상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한 번에 캐치하지 못했다면 소거법으로라도 풀 수 있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출제되니 두 태도 모두 겸비해두도록 하자.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긍정적인 처지를 부각하는 대상이다.
② ㉠과 ㉡은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는 대상이다.
③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자각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④ ㉢은 화자가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결핍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번 선지를 함정 선지로 출제하였다. 화자가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는 하지만, ㉠이 현실에 대해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촉발한다고,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고전시가 세트에서 세부 정보로 변별할 수도 있기에 지문에 근거하여 꼼꼼히 체크하는 태도를 겸비해 둔다면 좋겠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유배된 작가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에서 드러나는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죄에 관한 인식과 임금을 의미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한편, (나)는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사우'와 그 긍정적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조를 꺾은 속된 선비들과 달리 지조를 지켜 유배 가게 된 자신을 긍정하고자 했다.

① (가)의 죄가 '산 같이 쌓였으니' 자신이 '사람을 탓하랴'라는 화자의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책을 의미하는군.
② (나)의 화자가 청고한 '내 벗이 다만' 국화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국화에 대한 화자의 예찬을 의미하는군.
③ (가)의 '꿈의 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나)의 소나무가 '풍상'을 겪어도 '시드는 줄' 없는 것은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하는군.
④ (가)의 화자를 따르는 '그림자'가 '가여운' 것은 화자를 만날 수 없는 임이 느끼는 처연함을 드러내고, (나)의 매화가 '눈 속'에서 '꽃'을 피어 '한 빛'인 것은 매화의 꿋꿋함을 드러내는군.
⑤ (가)의 화자가 '낙월'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의 대나무가 '온갖 꽃'과 달리 푸른 것은 속된 선비들과 달리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하는 군.

◆ <보기>가 (가)에 대해서는 지문 내용을 해설해 주고 있고, (나)에 대해서는 지문 외적인 내용을 끌고 와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선지에서 지목한 지문의 부분과 지목한 <보기>의 내용이 매칭이 되는지, 선지에서 지목한 <보기>의 내용이나 지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문제를 풀면 되겠다.

03> 연관 기출
2411_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시적 상황과 낯선 연시조의 독해 그리고 선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 간의 매칭이 중요한 기출이다. 직접 풀어보며 그 흐름을 느껴**보도록 하자.**